

글 강지남 서울대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 커뮤니케이션 오피서
본 자료 발표자 엘리자베스 킹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마리아 플로로 미국 아메리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전지원 서울대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 책임연구원
 김영옥 한국고용복지연급연구원 이사
 최경숙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장
 도남희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디자인 김경민 서울대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교수
 최정미



2024 국제 돌봄 컨퍼런스 리뷰 ① 젠더와 돌봄

돌봄 노동을 ‘진심으로’ 인식해야 돌봄 위기 해결할 수 있어

돌봄 위기 해소, 왜 성평등이 중요한가

본 센터는 2024년 9월 9~10일 2024 국제 돌봄 컨퍼런스 <초저출생 위기 한국, 돌봄에서 길을 찾다: 젠더, 국제이주, 디지털, 공동체>를 주최했습니다. 2019년부터 돌봄 관련 여러 이슈를 연구하며 대안을 모색하고 정책을 제언해온 본 센터의 출범 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였습니다. 세계 유수의 돌봄경제 전문가와 연구자, 돌봄 현장 활동가 등이 참여한 본 컨퍼런스의 주요 내용을 3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돌봄경제Care Economy란 인간의 능력을 생산, 개발, 유지하는 활동입니다. 유급의 아동 및 노인 돌봄, 그리고 의료, 교육, 사회적 서비스 등이 돌봄경제에 해당합니다. 가족과 지역 사회가 제공하는 무급의 돌봄노동 또한 돌봄경제의 중요 부분을 이룹니다. 하지만 기존 경제 체계에서 이러한 돌봄경제는 상당 부분 경제 행위로 인정 받지 못했고, 그래서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돌봄경제를 파악해본다면 그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본 센터가 주최한 2024 국제 돌봄 컨퍼런스 <초저출생 위기 한국, 돌봄에서 길을 찾다: 젠더, 국제이주, 디지털, 공동체>의 세션1 ‘젠더와 돌봄: 성과와 도전’의 첫 발표자로 나선 엘리자베스 킹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전 세계은행 부총재)은 “미국의 경우 돌봄경제 규모는 연간 6조 달러(약 8015조 원)로 미국 제약산업보다 더 큰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표1> 전 세계 및 지역별 부양비율 추이

자료 제공 : 엘리자베스 킹

아프리카를 제외한 전 세계의 부양비율은 계속 상승 추세									
지역	1950	1970	1990	2010	2030	2050	2070	2090	
전 세계	64.8	74.9	64.0	52.5	54.7	59.1	62.3	65.7	▲
아프리카	80.5	90.1	91.6	81.2	67.7	61.5	55.8	55.7	▼
아시아	67.9	79.5	63.3	48.0	50.6	55.8	63.0	69.9	▲
유럽	52.2	55.6	49.7	46.6	64.7	74.9	75.6	80.6	▲
중남미	78.0	86.7	69.8	52.4	50.2	57.3	70.7	80.4	▲
북미	54.4	61.7	51.7	49.0	64.8	65.2	72.3	76.2	▲
오세아니아	59.2	65.8	56.2	53.4	60.3	61.8	64.4	69.5	▲

참조 : 부양비율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나타낸 지표로, 아동(0~14세)과 노인(65세 이상) 인구의 합을 15~64세 인구로 나눠 산출함

<그림1> 인구 변화와 성평등 및 돌봄의 상호 연결성

자료 제공 : 마리아 플로로



청년 10명이 6.5명의 아이와 노인 부양해야

문제는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돌봄경제에 커다란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세계는 높은 부양비율 **Dependency ratio¹**의 부담을 감당해야 합니다. 킹 위원에 따르면 전 세계 출산율은 1950년 1000명당 37명에서 2050년 15명 이하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전 세계 60세 이상 고령자는 2050년 21억 명으로 늘어나는데, 이는 2025년 대비 2배 증가한 숫자입니다. 고령 인구는 급증하고 출산율은 급감하는 여파로 아프리카를 제외하고 전 세계적으로 부양비가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표1) 2090년 부양비율은 전 세계 평균 65.7%로 상승하며 유럽 80.6%, 북미 76.2%, 아시아 69.9%에 달하게 됩니다.

킹 위원은 앞으로 심각해질 돌봄 위기 해소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4가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돌봄노동자 보호 △돌봄의 질 보장 △포용적이고 다양한 돌봄의 제공 △혁신입니다. 각 국가와 사회는 돌봄 인력 확보를 위해 돌봄노동자의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하며 모든 돌봄노동자가 공정한 보상을 받게 해야 합니다. 돌봄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돌봄경제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표 하에 신기술 활용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아예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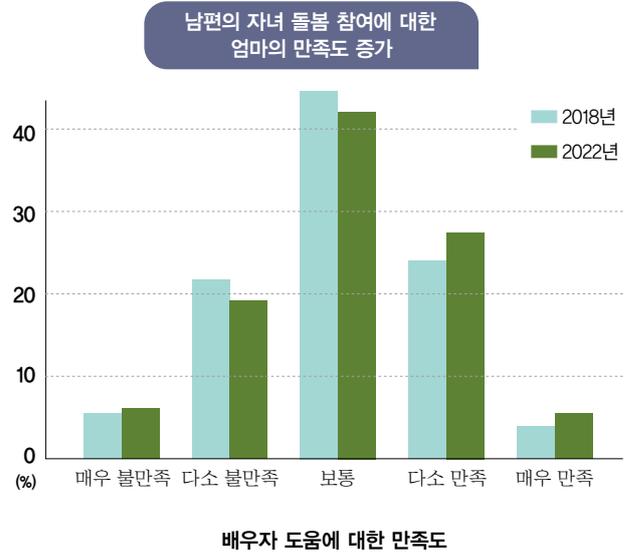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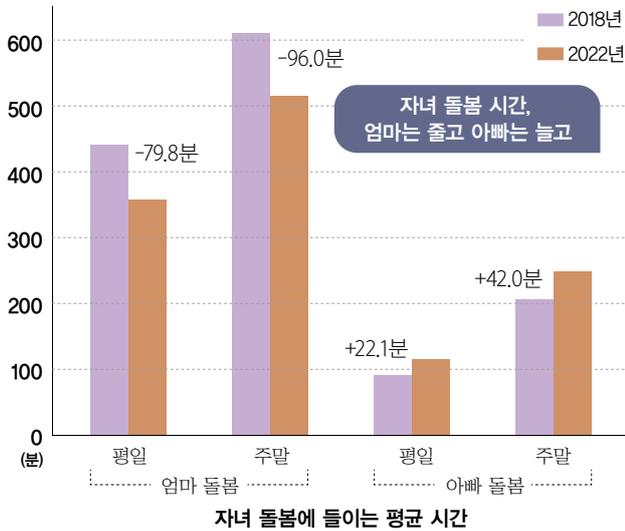
두번째 발표자로 연단에 선 세계적 돌봄경제 전문

2024 국제 돌봄 컨퍼런스에는 온·오프라인으로 250여 명의 청중이 참여해 열띤 분위기 속에서 돌봄 관련 여러 주제를 논의했다.



¹ 경제활동인구 대비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나타낸 지표. 0~14세 인구나 65세 이상 인구의 합을 15~64세 인구로 나눠 산출한다.

〈그림2〉 부모의 자녀 돌봄 시간 및 만족도 변화 추이 자료 제공 : 전지원
(2018-2022 한국의 돌봄 조사)



가 마리아 플로로 미국 아메리칸대 명예교수는 “성평등을 실천해야 한국의 인구학적 난제, 즉 돌봄 위기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림1) 그는 “스웨덴, 독일, 영국 등 선진국에서 진행된 여러 연구에서 부부의 가정 내 노동 분담이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발견됐다”며 “출산을 저하의 원인 중 하나는 가정 내 성불평등, 특히 불평등한 노동 부담에 대한 여성의 저항”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즉,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여성들이 가정 내 노동 부담을 피하는 방법 중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플로로 교수가 주목한 한국의 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급 돌봄노동 부문이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무급의 가족 돌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가정 내 남성과 여성의 돌봄 노동 격차가 상당합니다. 또 한국은 OECD 국가 중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국가입니다. 반면 여성과 남성의 교육 수준 격차는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여성이 다소 높습니다. 플로로 교수는 “이런 환경에서 여성은 아예 결혼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실제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결혼 추세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플로로 교수는 한국에 “성평등적 사회 규범을 체계

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는 성인지적 공공 정책의 도입”을 권합니다. 이를 통해 가족 내 돌봄 노동의 보다 평등한 분담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임금 및 복리후생에 불이익 없이 유연한 근무 체계를 도입하고 △직원의 돌봄 책임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것 △세금과 사회보장, 연금 정책 등에서 ‘남성 가장’ 중심의 편향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조언했습니다.

위태한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프로그램

세션1의 마지막 연사 전지원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 책임연구원은 “2018-2022 한국의 돌봄 조사를 통해 본 자녀 돌봄의 양상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전 연구원이 분석한 한국의 자녀 돌봄 양상 변화는 ‘새로운 희망, 그리고 여전한 그림자’로 요약됩니다.

희망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2018년 대비 2022년 아버지는 자녀 돌봄에 더 많이 참여했고, 남편의 자녀 돌봄 참여에 대한 엄마의 만족도가 상승했습니다. (그림2) 엄마가 자녀 돌봄 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비율은 낮아졌고²⁾, 아빠의 육아휴직 비율은 높아졌습니다.³⁾

하지만 그림자가 관찰됩니다. 엄마는 아빠보다 더

²⁾ '2018-2022 한국의 돌봄 조사'에서 자녀 돌봄으로 일을 그만두는 엄마의 비율이 2018년 72.46%에서 2022년 46.3%로 낮아졌다.

³⁾ 아빠의 육아휴직 비율은 2015년 5.6%에서 2023년 28%로 5배 가량 증가했다.

마리아 플로로

미 아메리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영옥

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 이사

김경민

서울대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교수



도남희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엘리자베스 킹

미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최경숙

서울시 어르신돌봄중보자 종합지원센터장



전지원

서울대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 책임연구위원

2024년 9월 10일 국제 돌봄 컨퍼런스 <초저출생 위기 한국, 돌봄에서 길을 찾다: 젠더, 국제이주, 디지털, 공동체> 세션1의 발표자와 토론자들.

많이 자녀 돌봄의 부담을 호소합니다. 2022년 한국의 돌봄 조사에서 ‘자녀 돌봄이 너무 힘들다’는 항목에 엄마는 63.9%, 아빠는 36.1%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자녀 돌봄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항목에는 엄마는 61.4%, 아빠는 38.6%가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엄마와 아빠의 자녀 돌봄의 부담 차이가 여전히 매우 큼니다.

자녀 돌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은 시작 전 서비스 취소율이 57%나 될 정도로 위태하게 출발했습니다. 전 연구원은 “엄마들은 오로지 자녀에 집중하기 위해 집안일 등을 맡기고 싶어하는데, 집안일은 가사관리사에게 맡길 수 없게 돼 있다. 또 가사관리사를 사용하는 스케줄 변경도, 가사관리사 교체도 허용되지 않는

다”며 “실제 니즈와 제공 서비스 사이의 미스매치로 인해 계획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염려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제 우리는 오늘날의 부모가 초저출산 시대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되기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자녀를 돌보는 부모를 시민 양성자, 미래세대 양성자로 평가, 존중하며 이들의 돌봄 노동을 사회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성평등적 사고의 확대는 희망의 근거

세션1의 토론자들 역시 젠더 관점에서 돌봄 위기 해소 방안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김영옥 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 이사는 “돌봄노동을 줄이려는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돌봄노동을 인정하

는 방식으로 가치를 부여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핀란드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핀란드는 2006년부터 장기 가족 돌봄제공자에게 사흘 간의 ‘돌봄 휴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잠시 가족 돌봄에서 벗어나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최경숙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장은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현실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방문 돌봄노동자의 월 평균 시급은 1만1000원으로 전체 노동자 월 평균 시급의 42.3%에 불과합니다. 그는 “직무 평가를 통해 돌봄노동 가치를 다시 산정하고 임금 체계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남희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자녀가 5세가 될 때까지 아빠의 돌봄 참여가 높으면 엄마가 돌봄을 낳을 생각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양성 평등은 출산율에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최근 보고된 아빠의 돌봄 참여 증가와 양성평등적 사고는 분명 희망의 근거가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김경민 서울대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여성 노인은 남성의 배우자를 돌보지만 정작 자신은 배우자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소개하며 “이중으로 돌봄 위기에 처한 여성 노인”에 대한 여러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돌봄 없이 가정과 사회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체로 여성이 유급 혹은 무급의 돌봄을 담당해왔기 때문에, 돌봄 영역에서 젠더 불평등이 발생해왔습니다. 젠더 이슈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전 세계가 맞닥뜨린 돌봄 위기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돌봄노동을 얼마나 진지하게 인식하고 평가하느냐에 돌봄 위기 해결책이 달렸다”는 세션1 발표자 및 토론자들의 일성(一聲)에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㉞

“본 브리프는 2024년 9월 9~10일 개최된 국제 돌봄 컨퍼런스 <초저출생 위기 한국, 돌봄에서 길을 찾다: 젠더, 국제이주, 디지털, 공동체>의 둘째날 세션 1 ‘젠더와 돌봄: 성과와 도전’ 발표를 본 자료로 작성했습니다. 본 브리프의 발표 자료를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